

4. 창조주 하느님

창조는 신앙의 신비인 동시에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영광을 더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누어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권능, 지혜, 사랑을 알고 경탄하는 것은 인간을 경외, 흠숭, 겸손의 자세로 이끌며,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알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서론

창조의 중요성은, 창조가 "하느님의 모든 구원 계획의 토대이자 [...]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르는 구원 역사의 시작"이라는 데 있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 51 항). 성경과 신경은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의 다른 위대한 신비들(삼위일체와 강생)과 달리, 창조는 "우리의 기원과 목적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첫 번째 응답"(*요약*, 51 항)으로서, 인간 정신이 스스로 제기하고 또 부분적으로 답하기도 합니다. 이는 철학적 성찰과 수많은 민족의 종교 문화에 나타나는 기원 설화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습니다(참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 285 항). 그렇지만 창조 개념의 고유한 의미는 사실상 유대-그리스도교의 계시를 통해서만 온전히 파악되었습니다.

창조는 따라서 신앙의 신비인 동시에 이성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참조. *교리서*, 286 항). 이러한 독특한 위치 덕분에 창조는 그리스도인들이—오늘날에도¹—수행해야 할 복음선포와 대화의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성 바오로가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에서 이미 그리하였듯이 말입니다(참조. 사도 17,16-34).

창조하시는 하느님의 행위(능동적 의미의 창조, *active sumpta*)와 그 신적 행위의 결과인 창조된 실재(수동적 의미의 창조, *passive sumpta*)² 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창조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공동 사업이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92 항)

계시는 하느님의 창조 행위를 그분의 전능, 지혜, 사랑의 열매로 제시합니다. 창조는 보통 성부께, 구원은 성자께, 거룩하게 하심은 성령께 귀속시킵니다(참조. *요약*, 52 항). 동시에 삼위일체의 외부적 활동(*ad extra*)—그 첫째가 창조입니다—은 세 위격에 공통되므로, 창조에서 각 위격의 고유한 역할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각 신적

위격은 공동 사업을 자신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실행하기"(교리서, 258 항)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으로 본질적 속성들(전능, 지혜, 사랑)을 성부, 성자, 성령의 창조 활동에 각각 귀속시키는 이유입니다.

가)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성경 첫 구절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 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을 주셨습니다. 창조하시는 분은 하느님뿐 이십니다(히브리 말로 '창조하다'를 뜻하는 동사 *bara*의 주어는 언제나 하느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를 주시는 분에게 의존합니다"(교리서, 290 항).

오직 하느님만이 고유한 의미에서 창조하실 수 있으며³, 이는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에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ex nihilo*) 사물들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한한 능동적 능력이 필요한데, 이는 오직 하느님께만 있습니다(참조. 교리서, 296-298 항). 따라서 창조의 전능을 성부께 귀속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부는 삼위일체 안에서—전통적인 표현에 따르면—*fons et origo*(원천이요 기원)이시니, 곧 원리 없는 원리로서 다른 두 위격이 발출하시는 위격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실재에서 근본적인 구분이 하느님과 그분의 피조물 사이에 있다고 단언합니다. 이는 초기 세기들에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물질과 정신 사이의 대립이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시각들(유물론과 유심론, 이원론과 일원론)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물질도(정신과 마찬가지로) 유일하고 초월적인 하느님의 창조물이라고 단언함으로써 이러한 틀을 깨뜨렸습니다. 이후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느님을 자존하는 존재 자체(*Ipsium Esse Subsistens*)로 묘사하는 창조의 형이상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제일 원인으로서 하느님은 세상에 절대적으로 초월하시면서도, 동시에 피조물에게 당신의 존재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 안에 내밀하게 현존하시며, 피조물들은 존재의 원천이신 그분께 모든 면에서 의존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가 이미 상기시켰듯이, 하느님은 *superior summo meo*(나의 가장 높은 것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intimior intimo meo*(나의 가장 깊은 것보다 더 깊이 계시는 분)이십니다⁴.

나)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

구약의 지혜 문학은 세상을 하느님의 지혜의 열매로 제시합니다(참조. 지혜 9,9). "세상은 어떤 필연이나 맹목적인 운명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교리서, 295 항), 세상에는 인간 이성이—창조주와 그분의 작품 앞에서 겸손과 경외의 정신을 지니고—신적 지성의 빛에 참여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 가지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참조. 욕 42,3; 교리서, 299 항). 이러한 발전은 신약에서

온전히 표현됩니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와 동일시함으로써(참조. 요한 1,1), 하느님의 지혜는 한 위격, 곧 강생하신 말씀—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된—이라고 단언합니다(참조. 요한 1,3). 성 바오로는 피조물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참조. 콜로 1,16-17).

따라서 우주의 기원에는 창조하는 이성이 있습니다(참조. 교리서, 284 항)⁵.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인간 이성의 인식 능력에 대한 굳은 신뢰를 지녔으며, 이성(과학적이든 철학적이든)이 결코 신앙과 상반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양자 모두 동일한 기원에서 유래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진화 사이처럼 거짓된 양자택일을 제기하는 이들을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적절한 인식론은 자연과학과 신앙 각각의 고유한 영역을 구분할 뿐 아니라, 철학을 필요한 매개 요소로 인정합니다. 과학은 그 방법과 대상이 고유하여 인간 이성의 전 영역을 다루지 못하며, 과학이 다루는 동일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신앙은 스스로를 표현하고 인간 합리성과 대화하기 위해 철학적 범주를 필요로 합니다⁶.

따라서 교회가 처음부터 이성과 대화를 추구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성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식하는 이성—스스로에게 존재를 부여하지 못했고 자신의 미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는—이며, 자신을 초월하는 것에, 궁극적으로는 근원적인 이성에 열려 있는 이성입니다.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서 가장 깊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닫힌 이성은 결국 존재의 무의미함을 단언하고 실재의 가지성을 부정하게 됩니다(허무주의, 비이성주의).

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

"우리는 [세상이] 하느님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피조물들이 당신의 존재, 지혜, 선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뜻에 따라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습니다'(묵시 4,11). [...]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신 분, 그 자비 당신의 모든 조물 위에 미치네'(시편 145,9)'(교리서, 295 항). 따라서 "하느님의 선에서 나온 창조는 그 선에 참여합니다('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창세 1,4.10.12.18.21.31). 창조는 하느님께서 선물로 원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교리서, 299 항).

이러한 선함과 자유로운 선물의 성격에서, 창조 안에 성령—"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창세 1,2)—의 작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안에서 선물이신 위격,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자존하시는 사랑이십니다. 교회는 생명을 주시고 모든 선의 원천이신 성령의 창조 사업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⁷.

하느님의 자유로운 창조 행위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단언은 하느님 안에 어떤 필연성을 놓음으로써 결국 숙명론이나 결정론을 지지하게 되는 다른 시각들의 협소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움직이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의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2.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제 1 차 바티칸 공의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영광을 더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누어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⁸. 성 보나벤투라의 이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제 1 차 바티칸 공의회(1870 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의 선과 전능한 능력으로, 당신의 복락을 더하거나 당신의 완전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베푸시는 선으로 당신의 완전함을 드러내시기 위해, 유일하고 참된 하느님께서서는 지극히 자유로운 결정으로 시간의 시작에 영적이고 물질적인 피조물을 무에서 함께 창조하셨습니다"(DS 3002; 참조. *교리서*, 293 항). 따라서 피조물의 목적이 하느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일종의 신적 자기중심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서는, 말하자면, 당신 자신에게서 나오시어 피조물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이 드러남과 하느님 선의 전달이 실현되는 것에 있으며, 그것을 위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에페 1,5-6). '하느님의 영광은 살아 있는 인간이요,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교리서*, 294 항)⁹.

대립하는 원리들의 변증법(마니교의 이원론이나 헤겔의 일원론적 관념론과 같은)과는 거리가 멀게, 창조의 목적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단언하는 것은 인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실현되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낙관주의는 하느님과 인간의 공동 고양에 뿌리를 둡니다. "인간은 하느님이 위대하실 때만 위대합니다"¹⁰. 이것은 선의 절대적 우선성을 단언하는 낙관주의와 논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역사 안에 존재하는 악에 눈을 감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다음 주제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핵심 주장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하느님인 동시에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높임 안에서 인류가 들어 올려지고 동시에 신성의 광채가 드러납니다.

3. 피조물의 시간적 성격과 진화

하느님의 창조 행위의 결과는 창조된 세계 전체, "하늘과 땅"(창세 1,1)입니다. 제 4 차 라테라노 공의회(1215 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느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모두의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권능으로 당신은 시간의 시작부터 영적 피조물과 물질적 피조물, 곧 천사계와 세상을 무에서 함께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DS 800).

이는 한편으로, 앞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교가 일원론(물질과 정신이 혼동되거나 하느님과 세상의 실재가 동일하다고 단언하는)과 이원론(물질과 정신이 서로 대립하는 원초적 원리들이라고 하는) 모두를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가르침은 창조 행위가 하느님의 영원에 속하지만 그 행위의 결과는 시간성으로 표지되어 있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계시는 세상이 시간적 시작과 함께 창조되었음을, 즉 시간과 함께 창조되었음을 단언합니다. 이는 구원 역사 안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려는 하느님의 계획과 일치합니다. 이는 계시된 진리로서, 이성은 이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세상의 영원성에 관한 중세의 유명한 논쟁에서 가르쳤듯이 말입니다¹¹.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섭리로 역사를 이끄십니다.

따라서 창조는 시작이 있지만 최초의 순간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창조로서 형성됩니다. 창조하시는 하느님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창조는 최종적인 새 창조에서 그 절정에 이를 때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하느님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만물이 처음부터 완전히 고정되어 있다는 불변주의적 사고방식보다 그리스도교적 시각과 더 거리가 먼 것은 없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시각에서는, 고찰의 차원들을 구분하되, 하느님의 활동과 인과성의 영역을 피조물의 활동과 인과성의 영역과 구별하여 존중할 줄 안다면, 진화론의 몇 가지 측면들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을 두 번째 차원을 희생시키며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초자연주의(마치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피조물들은 유일한 신적 행위자의 손에 놓인 "꼭두각시"인 것처럼)로 이어지고, 두 번째 차원을 첫 번째 차원을 해치며 과대평가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불충분한 시각인 자연론적 이신론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르면 하느님은 자체적인 자율성을 가진 세상에서 활동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4. 창조와 구원

창조는 "유일하신 하느님과 당신 백성의 계약을 향한 첫걸음"입니다(요약, 51 항). 성경에서 창조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구원 활동—그 완성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이며, 종말에 최종적 완성에 이를 것입니다—에 열려 있습니다. 창조는

안식일, 즉 주님께서 쉬신 일곱째 날을 향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날은 첫 번째 창조가 절정에 이르고 여덟째 날에 열리는 날로서, 이날에 훨씬 더 경이로운 사업, 곧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2 코린 5,17; 참조. *교리서*, 345-349 항).

이처럼 창조와 구원이라는 하느님의 계획의 연속성과 일치가 드러납니다. 양자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창조는 첫 번째 구원 사건이며, 다른 한편으로 구원적 구속은 새 창조의 특성을 지닙니다. 이 관계는 본성이 은총에 질서를 이루고 있거나 인간에게는 단 하나의 초자연적 목적이 있다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요한 측면들을 밝혀 줍니다.

5. 창조에 관한 진리와 그리스도인의 삶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행위의 근본성은 동일하게 전적인 성격을 지닌 응답을 요구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신명 6,5; 참조. 마태 22,37; 마르 12,30; 루카 10,27). 동시에 하느님 행위의 보편성은 내포적이고 외연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전체 인간을, 그리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온 존재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과 내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직이 내적 생활의 총만함이라는 단언¹²은 하느님의 행위, 곧 삼위일체적 존재, 지혜, 사랑의 강렬함이 피조물들을 향해 넘쳐흐르는 것과 유사한 역동성으로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권능, 지혜, 사랑을 알고 경탄하는 것은 인간을 경외, 흠숭, 겸손의 자세로 이끌며,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알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의식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행복으로 채우는 참된 목적을 추구하면서 모든 행동을 수행하려 합니다. 바로 헛된 영광이 아닌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동에서 의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Deo omnis gloria*(하느님께 모든 영광을)!¹³

피조물들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은 사람들 안에 경탄을 불러일으키며, 세상과 인간의 기원과 목적에 관한 물음을 제기하게 하고, 창조주의 실재를 어렵듯이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신자들과 대화에서 지성과 마음이 창조주의 빛에 열릴 수 있도록 이러한 물음들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교의 신자들과 대화에서 그리스도인은 창조 안에서 탁월한 출발점을 발견합니다. 창조는 부분적으로 공유되는 진리이며, 인간의 근본적인 도덕적 가치들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기본 참고 문헌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79-301 항;
-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 51-54 항.
- 요한 바오로 2 세, *믿나이다 하느님 아버지를: 신경에 관한 교리 교육* (I), Palabra, 마드리드 1996, 181-218 쪽.
- 성 호세마리아, “세상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에스크리바 몬시놀파의 대답*, 113-123 항.